

SPACE

선의 향연, 공간에 패턴을 입히다 N2 house

에디터 송민진 제공 (pisou kedem architects/www.piso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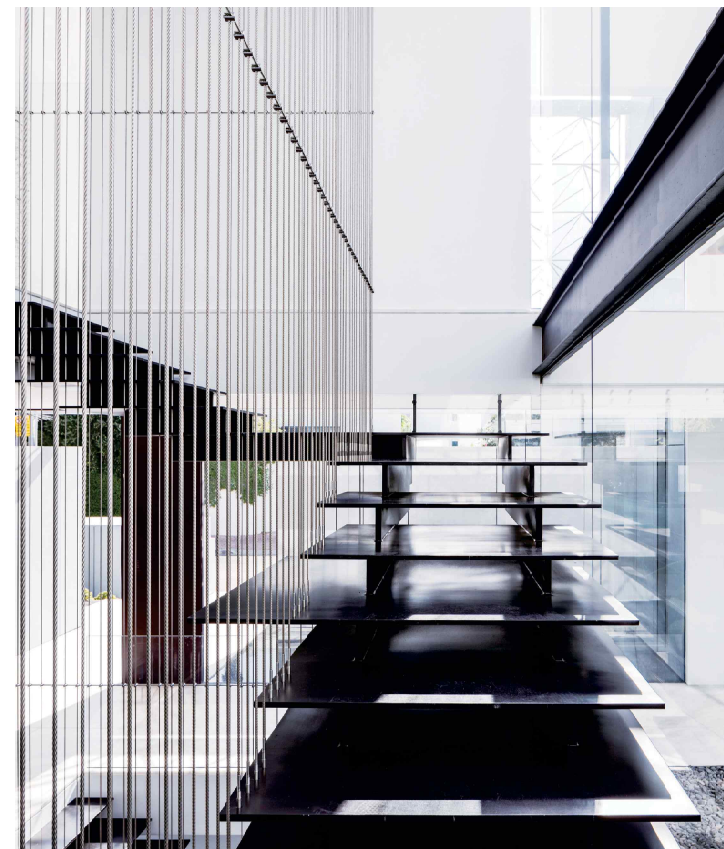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project_N2 HOUSE
위치 location_Herzliya Pituah, Herzliya, Israel
면적 size_1000m²
디자인 design_ame gadberg, pisou kedem
설계 architects_n2c malmed
사진 photo_ami geron





previous page, 내부 현역에는 건물 전 층을 관통하는 홀이 있으며 이곳에 플랫폼 형태의 계단을 설치해 조형미와 기하학적 느낌을 강조했다.
this page, 건물의 외장 일부에 설치한 철제 창은 필요불이름 연상하게 하는 추상적 패턴으로 디자인 해 처분하면서도 모던디자인 감각을 높였다.

Seven states of passage are set between the main gate and the back yard of this house. The first passage is under a grate lattice that floats above the entrance. To its left is a massive concrete wall that hangs above a dark reflection pool and hides the house interior. The second stage is beyond this wall, at a more private entrance hall that reveals the house and yet is separated from it with a glass wall. The third stage is at the main front door where there are two hallways: the main one crosses through the house whereas the second leads to the guest bathroom. The fourth stage is when moving along the main hall, which at its left is an internal patio rising three stories high, and housing both the staircase and a sitting area. Walking along the hall reveals the fifth stage, when the more private kitchen and family room are seen through slits in the hallway wall. The last stages are at the end of the hallway, where the living room is and, eventually, the open yard above which, echoing the entrance, floats a grate lattice. The hallway holds two windows. One is long and narrow and set at eye level. It is situated between the house's two private cubes that are separated by the public spaces. Another, sky window opens above the hallway and illuminates it with light that softens by its fall on the slanted railing wall of the second story bridge. Here too the grate lattice pattern appears, as it filters the light entering through the sk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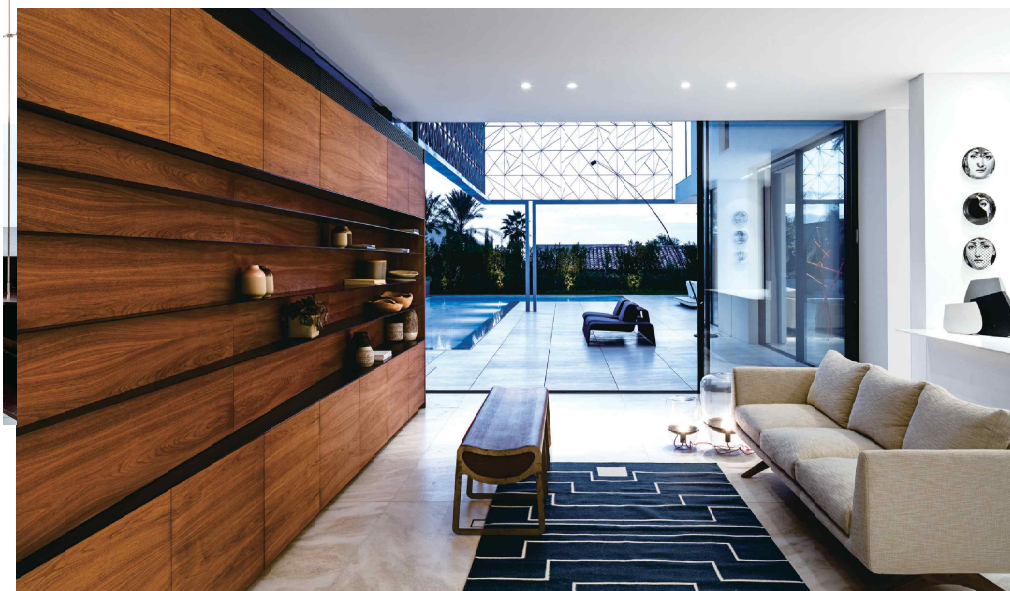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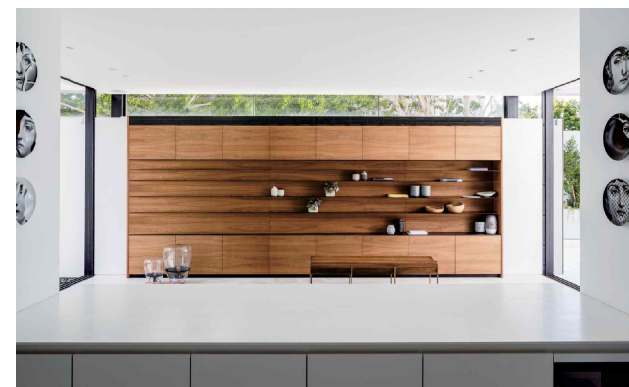


this page,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사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리로 벽을 세웠다.

대문과 집의 뒤뜰 사이에 통로로 인한 일곱 구역이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통로는 입구 위에 떠 있는 철제 격자창 뒤에서 시작한다. 한편에는 어두운 색상의 반사 바닥 위로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으며 집의 내부를 가린다. 두 번째 구역은 이 벽의 뒤에서 시작해서 더욱 조용한 현관으로 이어지며 집의 내부를 조금 더 공개하면서도 유리 벽을 통해 공간을 분리한다. 세 번째는 2개의 회랑이 있는 대문에서 시작된다. 한 회랑은 집 전체를 관통하며, 다른 회랑의 길을 따라갈 경우 손님방의 화장실로 연결된다. 네 번째는 본당을 지나는 길로, 내부 3층 높이의 파티오가 왼쪽에 자리하며 계단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회랑을 걷다 보면 다섯 번째 공간에 도착한다. 회랑 벽의 틈새로 보이는 조용한 부엌과 가족 공간이 있다. 마지막은 회랑의 끝에 위치한다. 거실이 있고 가장 끝부분에는 개방형 뜰이 있으며 입구를 상기시키는 거대한 철제 격자창이 공중에 있다. 회랑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다. 하나는 길고 좁으며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다. 공용 공간으로 분리된 2곳의 조용한 정육면체 형태 공간 사이에 놓여 있다. 또 다른 하늘 창은 회랑 위에서 빛을 투과하며, 2층 다리의 경사진 손잡이 벽에 내려앉은 빛으로 공간을 밝힌다. 하늘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 철제 격자창의 그림자 패턴이 또 한 번 나타난다. ㉔



this page, 주로 직선을 적용해 자칫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에 화사한 컬러의 가구와 벽 오브제를 인테리어로 활용했다. 트인 천장으로 중앙정원 같은 이국향과 생기를 동시에 끌어냈다.
 right page_top, 주방 공간은 우드 소재를 적용해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곳곳에 보이는 작가 포르나세타의 작품은 위트를 더한다.
 right page_bottom, 목재를 사용한 거실은 시각적으로 더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this page_top, 또 다른 기성 공간으로 또 다른된 매김제와 아이복과 컬러를 활용하여 인락함을 끌어올리고 오랜지 컬러 옷걸이는 조형적 역할을 하며 사안을 모른다.
 this page_bottom, 육선은 쿠리가 그려로 드러난 미법을 사용해 무게감과 생동감을 부여했다.
 right page, 수영장이 있는 2층 테라스는 일상의 여유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며 침대 창 그림자가 햇살 아래로 드리워질 때면 바닥에는 또 하나의 그림이 펼쳐진다.

